



들의 부부 문제에서 가장 큰 원인은 “돈”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가정에서만 사례를 신장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빈곤과 가정위 기 사이의 관계는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이혼율은 다른 계층보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조사에서는 고소득인 강남권 지역이 이혼가구 비율은 2.9%로, 저소득 지역인 서북권의 4.0%, 동북권의 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본 조건 중 하나인 건강도 경제력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계층의 우울장애 위험도를 1로 잡았을 때 200만 원 미만 계층의 위험도는 2.3나 된다고 합니다. 소득 최상위 20% 그룹의 흡연율은 47.83%이고, 최하위 20% 그룹은 64.59%라고 합니다. 또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혈중 납농도는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가정 아이들 보다 13%가량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입니다. 애초부터 변화를 이야기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메스미디어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을 한해 우리는 가족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가족과 부부의 의미, 가족 구성원의 역할, 노년, 교육, 결혼 등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개인과 교회의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에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면, 교회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텔레비전을 닮았다는 비판 앞에 당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가정의 행복과 돈의 관계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단지 돈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의 문제를 개인적, 심리적 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부부 문제 솔루션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솔루션들은 부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보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건 텔레비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영상과 제미를 무시할 수 없는 텔레비전에게 사회구조의 문제를 건드리고 깊숙이 파헤치는 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폴로리노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 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텔레비전에는 “부부 문제 솔루션”이라 불리는 프로그램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말 그대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해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년 전 MBC에서 <사주후애>라는 이름으로 방송되던 프로그램이 그 시작이었던데요, 이제목은 드라마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이 유행시켰던 “4주 후에 뽀짝살시다”라는 대사에서 나왔지요. 지금은 채널 A의 <그 남자, 그 여자>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mbc의 <남과 남 사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유사 프로그램 몇 개가 더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 문제 솔루션을 표방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비슷한 포맷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제 부부들의 생활을 소개합니다. 제작진이 장시간 부부의 일상을 지켜보거나 카메라를 설치해 문제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줍니다. 폭력, 알코올 중독, 의처증의부중 등 부부들이 들려주는 가정 이야기는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주로 상담, 행동 프로그램, 심리극, 가계컨설팅, 최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지요. 마지막으로 부부가 앞으로의 노력을 다짐하며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부부가 실제 겪을 수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이 됩니다. 부부간의 대화법, 소통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어딘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 부부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거나 그

에 대한 해결책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례 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겨운 삶과 부부관계의 문제를 패아놓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

“부부 문제 솔루션” 프로그램에 빠져있는 솔루션

◎ 박진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 이런 프로그램은 부부간의 대화법, 소통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어딘지 허전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 문제 부부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거나 그에 대한 해결책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